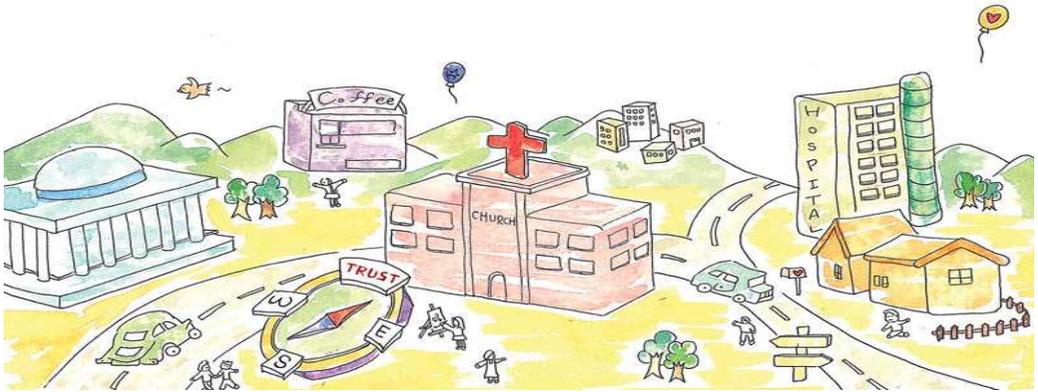


교/회/신/뢰/회/복/을/위/한/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 *일시 _ 2008. 9. 26(금) 오후 2시~4시
- *장소 _ 울산극동방송 공개홀
- *주최 _ 울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 *후원 _ 울산극동방송, 울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울산CBS, CTS울산방송, 울산기독신문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울산문화연대

울산기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Ulsan Christian Ethics Movement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발행일 | 2008년 9월 26일

발행인 | 이창희

편 집 | 류형철, 조제호

발행처 | **울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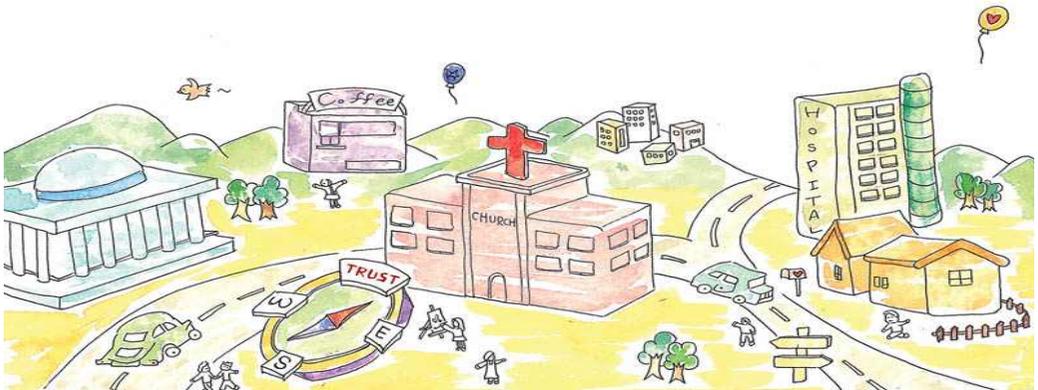
울산시 북구 천곡동 527

Tel. 052-285-2072 Fax. 052-282-0693

이메일. sisimi1@hanmaill.net

교/회/신/뢰/회/복/을/위/한/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 *일시 _ 2008. 9. 26(금) 오후 2시~4시
- *장소 _ 울산극동방송 공개홀
- *주최 _ 울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 *후원 _ 울산극동방송, 울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울산CBS, CTS울산방송, 울산기독신문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울산문화연대

울산기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Christian Ethics Movement

진행 순서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사 회 : 김진 교수(울산대 철학과, 울산기윤실 이사)

○ 인사말

- 이창희 대표(울산기윤실,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 축사

- 김문준 지사장(울산극동방송)

○ 주제발제

7

● 한국교회의 신뢰, 현황과 전망

- 임성빈 교수 / 장신대 기독교외문화

○ 지정토론

25

● '연대'와 '배려'와 '섬김'을 실천해야

25

- 한기양 목사(굿미션네트워크 부회장)

● 교회다움의 회복 - 빛과 소금된 삶

34

- 조태환 목사(울산큰빛교회)

● 소통의 근원 - 신뢰

39

- 박병종 사무총장(울산YMCA)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사례발표 42

- 울산투명사회협약의 체결과 지역협력 활성화 42
 - 김 승 형 사무국장(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사회봉사 50
 - 정 연 우 사무국장(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의 평생학습 52
 - 백 인 옥 대리(현대예술관 홍보마케팅팀)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소개

○ 울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인사말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소금에 대한 기대와 실망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 이래 반기독교적 감정이 이렇게까지 고조된 적이 있었을까요?

자금의 반기독교적 요소는 다분히 감정적이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운동성향 마저 띄고 있습니다. 대화중에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우리들을 폄하함으로써 종교적 감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까?

혹은,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의 때가 이르러 핍박이 시작된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둠을 밝힐 '빛'을 기대했고 썩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대해 '소금'을 기대한 듯합니다. 그러나 소금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을 길 바닥에 내다버렸고 실망한 사람들이 짓밟는 것은 아닐런지요.

교회가 교회적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람들도, 세상도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함께 찾아보면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세상에 대한 교회적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교회지도자 여러분, 후원해주신 극동방송과 여러 기관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26일

울산기독교윤리실천대표 이창희

주제 발제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기윤실 정책평가위원장

한국교회의 신뢰, 현황과 전망

1. 우리가 신뢰를 말하는 이유

대한민국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을 이룬 나라도 세계에서 드물다. 36년간의 일제식민지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1945년에야 맞이하였고, 곧 이은 민족분단과 6.25라는 큰 비극적 사건을 경험한 국가가 50 여년 만에 오늘날의 경제규모와 정치적 민주화와 다양한 사회문화의 공존과 사회 안정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말하고, 오늘의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 정도의 사회적 부와 안정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풍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문제들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신앙인들과 교회가 함께 감당하여야 할 신앙인들의 책무(accountability)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난 압축적 성장에는 값비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요사이 절감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21세기적 시장가치의 편만화, 세계적 경쟁체제의 가속화는 농·어촌과 생태계의 파괴화, 전통문화 및 윤리가치의 붕괴,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의 범람 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의 통합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

러한 사회적 위기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존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체제의 강화로 인하여 동료와 이웃이 실종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신뢰'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서로간의 불신감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또한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의 고조는 결국 건전한 시민사회를 가꾸면서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통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통일한국을 향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사회발전 및 통합을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 서로간의 신뢰의 증진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사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심각한 현실인식을 갖게 된다. 특별히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차원, 즉 기독교윤리의 차원에서 교회는 그 위기의 근본요인 중 하나로서, 또한 그 위기 극복의 대안 중 하나로서 신뢰를 주목하게 된다.

2. 왜 신뢰인가?

2-1. 신앙적 측면에서

신뢰는 우리의 신앙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리처드 니버는 신앙이란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자아의 태도”이며 또한 그 태도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불신하는가”¹⁾로 나뉘어진다고 정의하였다. 신앙은 신뢰(Trust)와 충성(Loyalty)로 구성되어 있다.²⁾ 즉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신뢰와 충성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구성되고 표현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 이웃을 향한 신뢰와 충성의 정도로 기능되어 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행적인 사랑, 즉 창조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와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 즉 언약(covenant)안에서의 은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2-2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아래 '예민한 양심'을 회복하게

1)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63), p. 118.

2) H. Richard Niebuhr, *Faith on Earth: An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Human Faith*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89), p.46

된다.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과 함께 세상적 가치와 문화적 조류에 따라 살아가던 자기중심적 삶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것이 곧 회개(metanoia)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 즉 물질에 대한 탐닉과 향락적 소비와 자기 과시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가치관과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전환, 즉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자 과정이다. 이때 신앙인들은 '보혜사'와 '위로자'로서의 성령님의 동행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선민이자 의인으로서의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를 감사하고 앙망하며 실천하는 겸손한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3.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회개가 결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예컨대 구약성서의 레위기는 죄에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경우를 들어 구조적 죄에 대한 통찰을 준다. 물론 신구약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영적 배경에 대하여서도 가르침을 받는다. 일찍이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저서를 통하여 이러한 죄의 구조적 측면에 대하여 확인하여 준 바 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publicness)과 사회 구조 안에 자리하는 죄성에 대한 통찰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죄성의 극복에는 개인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 차 보이는 현실을 극복케 하여 주는 신앙과 그 신앙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과 은혜를 세상과 나눌 때에 우리는 '신뢰'를 중요한 징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윤리는 초월적 개념이 강하게 담지된 신학 용어와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신학 용어를 통하여서는 담보되기 어려운 시민사회와의 사회윤리적 합의와 연대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중간 공리(middle axiom)를 제시하여 왔다. 중간 공리는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초월적 가치, 즉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치를 당시의 사회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그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랑, 정의, 인간 존엄성 등의 가치들로 제시함을 뜻한다. 이러한 전통을 고려할 때 21세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중간 공리로서 '신뢰'는 매우 적절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교회와 신뢰, 그 현황

3-1. 신뢰와 신앙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 교회의 신뢰는 곧 한국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3-2.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 대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삶을, 교회적으로는 교회다움으로서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3-3. 이 때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차원도 가지게 된다.

3-4.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은 신앙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응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윤리적 탁월성과 전문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신뢰회복의 주요 기준이자 요소들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탁월성은 기존의 문화조류와 도덕적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반성하고 비판하고 극복하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문성이란 청지기직과 만민제사장직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attitude)와 행위(behaviour)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이 땅에서의 당파적 이익을 초월하는 공동선(common good)을 가능케 하는 소망의 근원을 뜻한다.

3-5.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신뢰는 곧 윤리적 탁월성과 전문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점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신앙인들 사이의 관계위기, 즉 신앙의 위기이며 영적 위기를 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5-1. 이러한 신앙의 위기, 영적 위기는 곧 한국 교회(신앙인들)가 윤리적으로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뜻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담보에 있어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교회의 윤리적 탁월성은 신앙인들 개개인의 삶으로부터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경영의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된다.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탁월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그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신뢰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예컨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확보되었던 윤리적 탁월성은 적은 교인의 숫자를 가진 한국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1919년 3.1운동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3-5-2.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이자, 이 땅의 시민사회에 속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또한 그 고양을 위한 교육과 양육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초대교회의 노력에 비하면 아쉬

운 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일찍이 근대 교육에 앞장섬으로써 근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역사에 비하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숙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력 양성을 충실히 하여 오지 못하였다는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3-5-3.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선적으로는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욕망과 사상과 종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줌으로써 결국 공동선을 향하여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하여 준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정치체제와 문화도 절대화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토대인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이 세상을 상대화하면서도 이 세상의 귀중한 가치를 존중케 하는 것으로서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의 한국교회의 사회참여는 때로 갈등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특정한 이들과의 정파적 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교회로서의 거룩성과 초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공동선보다는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취집이 오늘날 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의 추락으로 직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4. 한국 교회의 신뢰, 그 전망

4.1. 신뢰 증진의 도전요소

I: 주목하여야 할 상황변화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민족, 즉 이웃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과 집단이자 개인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 선교와 섬김을 가능케 하는 매우 귀중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 본 바 전통적인 교회의 신뢰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의 토대를 이루는 신앙적 토대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으로서의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으로서의 신뢰와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변하는 성경적 진리를 변화하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대적 상황(context) 변화는 매우 주목하여야 할 요소이다.³⁾

3) Alan E. Nelson, *Spirituality & Leadership: harness the wisdom, guidance and power of the soul* (Navpress, 2002), pp. 29-30

4-1-1. 교육: 전체적으로 피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열망한다. 교육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역자(collaborators)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혜와 통찰을 모으고 다듬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4-1-2. 정보: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숙과 함께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교회는 자칫 소외되거나 혹은 세상적인 이야기들 속에 그 정체성을 잃어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더욱 다양한 관계망과 소통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너무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성경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취사선택하고 또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1-3. 여성: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과 전문직 여성의 놀랄만한 증가는 더욱 부드럽고 온유한 형태의 리더십을 요청한다. 남성적인 리더십이 결과 중심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데에 비하여 여성적인 리더십은 과정 중심적이다. 이러한 여성 리더십의 특징은 전통적인 리더십에 비하여 오늘날의 교회 리더십이 지향하여야 할 리더십이 더욱 통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해 준다.

4-1-4. 민주화: 우리 시대 문화의 특징은 모두가 집단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의 강화와 정보의 홍수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위계적 질서에 익숙하여 있는 교회는 사회로부터 게토(ghetto)화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과제를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복음의 정체성과 진리의 불변성을 타협하는 선동정치(demagogue)의 풍조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4-1-5. 조직의 복잡화: 많은 조직들이 더욱 대형화, 복잡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작은 조직들과 기업들도 심화되는 경쟁상황에 놓여 있다. 정태적이고 단순하던 시대보다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할 과제를 가진다. 동시에 교회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은사, 즉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위임(delegation)과 임파워링(empowering)을 더욱 강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41-6. 파편화되는 충성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례 없이 많은 기회와 함께 도전과 스트레스도 크게 받고 있다. 그들은 모바일(mobile)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성원 각자들에게 구체적인 삶과 존재의 의미와 유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고,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신뢰와 섬김의 리더십을 요청받게 된다.

42 신뢰 증진의 도전요소

II: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 도전

42-1. 민족주의적 도전

어떤 이들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공산주의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이 나라에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문화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별히 세계화시대를 맞아 역설적으로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복고적 경향을 타고 이러한 비판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감정적인 변론이나 논쟁보다는 복음전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밝히고 실천하는 것은 빛으로서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교회는 적극적으로 근대화와 자주독립운동과 여성이나 어린이 등의 사회소외계층들을 향한 인권개념 확립의 역사,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기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강화하고, 21세기적 상황에서 기독교와 민족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2-2 반지성주의적이라는 도전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교회가 창조론 등의 비과학적 사실들을 유포시키고, 배아복제기술 등의 새로운 과학발전에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과학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은 근대이래로 교회가 직면하였던 전형적인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때때로 교회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모든 진리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들은 교회의 결정을, 나아가 성직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오류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지체의의식을 가지고 과학자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지속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계시의 차원에서 과학적 발견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회는 결코 반

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위해 진지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인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와 과학자들과의 건설적 대화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전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가능하여진다.

4-2-3. 반문화적이라는 도전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오늘날 교회가 대중문화에 대하여 너무나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기까지 하다며 비판한다. 그들은 청교도적인 잣대로 오늘의 대중문화에 대하여 교회가 못마땅해 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대중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교회가 이원론적인 문화관에 근거하여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범람하는 소비문화와 퇴폐적인 성문화의 범람을 좌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썩어져 갈 풍조가 주도하는 대중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분석과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받으시는 대안적인 문화를 창출함에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4.3. 신뢰회복을 위한 교회의 몸짓4)

4-3-1. 통합적인 윤리가치관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증진의 요건 중 하나는 한국 교회가 사회에 통합적인 윤리적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윤리가치관의 제공문제는 한국사회 안의 교회라는 관점만으로는 적절하게 응답되어 질 수 없는 문제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제공'이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한국사회를 초월하고 있는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대주의, 소비문화에서 파생하는 물질주의와 함께 무교, 불교, 유교, 도교,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가치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원적인 사회 안에서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가치관의 근원이 한국사회 내부로부터 온전히 찾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4-3-1-1.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가치관은 기존의 가치관들을 모두 상대화하면서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초월적인 근원을 요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탁월하게 강조하는 기독교가 다원주의적인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음을 우리의 실천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사회통합적인 윤리가치관의

4) 이 부분은 필자가 엮은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에 게재된 "기독교윤리학자가 보는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의 일부분을 본 소고의 논지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인용하였음

제공이라는 관점에서든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삶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곧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한국사회의 삶 한가운데에 내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3-1-2.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윤리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가치관이 과연 한국사회의 통합에 유용한 것이냐는 실용적이며 공리적인 관점에서의 질문도 함께 물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윤리적 가치관을 명확히 할 필요를 가진다. 성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하여 많은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과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윤리가치관은 한국 사회를 위하여서도 매우 유용한 것들이라는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결코 배타적인 명제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3-2 전통문화 및 대중문화와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한국문화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윤리가치관의 제공과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작업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한국사회에 대한 공감대형성의 문제이다. 한국사회라고 하는 한정된 시·공간을 함께 하는 교회와 사회는 문화라는 매개를 통하여 서로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곧 문화를 통하여 한국사회로 매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2-1.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한국교회는 한국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교회를 한국의 종교로서 보다는 서양종교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양상은 80년대 이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민족주의적 정서와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추세에서 기독교를 주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43-2-2. 전통문화와의 관계설정이 그러하였듯이 한국교회는 대중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문화와 한국교회의 관계가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의 포괄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대중문화는 매우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문화가 어제의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면, 대중문화는 오늘의 사람들이 신앙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데에 점차로 큰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의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의 틀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21세기 대중문화의 모판을 형성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 등에 대하여서도 매우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4-3-3.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통합의 전제이자 목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다. 자유로운 사회란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에 더욱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정의로운 사회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평등과 공평의 기준으로 나누며 사는 사회를 뜻한다. 평등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이라는 자격으로서 담보 받은 권리이자 책임이다. 공평이란 사회구성원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과정에 있어서의 정의이다. 인종이나 성별 등의 선·후천적 기득권에 의하여 어떤 사회구성원이라도 차별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평으로서의 정의사회론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는 소외된 자를 품는 사회이다.

4-3-3-1.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는 항상 사랑과 함께 논하여야 한다. 또한 사랑과 함께 하는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에만 관심함이 보수적인 자본주의의 약점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정의 그 자체만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결국을 우리는 동구공산주의 몰락에서 여실히 목격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의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4-3-3-2. 우리는 복음이 담지하고 있는 선교의 우선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하느니라”는 말씀을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복음적 관점이 나날이 중산층화 되어 가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가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연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하여, 한국사회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4-3-3-3.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각 개인과 사회집단들의 타자성(Otherness)을 인식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5) 많은 신앙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창조론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매우 진화론적이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삶의 철학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곧 그의 삶이 매우 진화론적인 입장(‘Social Darwinism’)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창조론적인 신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삶, 즉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각 개인과 집단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유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임을 자각케 함으로써 '우상적이지 않은 자기 존중 (non-idolatrous self-esteem)'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존중은 물질적 소유의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파생하는 파괴적인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늘어만 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사장적 돌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죄악들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5. 신뢰사회형성을 위한 교회의 신학적 토대와 실천

5.1. 윤리적 탁월성의 확보를 위하여: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의 정립과 실천

신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전인적인 응답이며 그 응답의 장은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전우주적인 차원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다. 사실 성서는 어디에서도 신앙과 삶의 태도(behavior)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⁶⁾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는 곧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윤리적인 질문을 낳게 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문제는 곧 윤리적 문제인 것이다.

이제부터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신앙인의 보다 책임윤리적인 삶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은 곧 윤리적으로 책임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곧 우리의 책임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성령의 교제와 성화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 순간 순간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온전한 이해에로 인도한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깨달으며 종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온갖 우상들을 부수게 된다. 또한 성령과의 교제로 인하여 가능하여 지는 우리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에게로의 돌아섬, 즉 회개는 우리에게 이웃의 범위를 넓혀준다. 예컨대 회개하기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이 혹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자손이라는 점, 즉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의 이웃은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모든 세상이, 물론 자연까지도 포함하여,

6)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p.54.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게 하여주는 것이 곧 신앙적인 회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숙해 지는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의 책임의 영역, 즉 이웃 사랑의 영역을 전우주적인 그것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신학이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우주적 책임을 각성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신앙적인 삶의 사사화(privatization)로 상징되는 세속화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적인 삶의 핵심, 즉 복음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개와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함의 작업에 세속화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에 바탕한 책임적 삶은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을 신뢰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5-2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신학정립과 실천

비록 기독교인들이 그 행함이 아닌 신앙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부적절하고 죄악된 행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삶으로써 응답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은 곧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뜻한다. 그것은 가정과 개인적인 인간관계,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을 포괄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전력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배제되어야 할 것은 성과 속, 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가르는 도식적인 이분법적 사고이다. 성직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직업은 거룩한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직장은 종교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다.⁷⁾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이러한 만인제사장직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많은 반성을 촉구한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당회라고 하는 지도집단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주도하여 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결정적인 기준과 목표는 항상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과 일함의 영역을 하

7) D. Krueger, op. cit., p.53.

나님 나라와 상관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교회의 현실이 교회만을 성스러운 현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이 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 된 교회로서의 본질과는 어긋나게 소수의 소리 큰 지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이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 지체들의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다.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이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기업, 정부,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힘입어 교회는 시민사회나 기업과 정부, 미디어의 영역과의 대화와 상호학습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적 학습과 대화는 교회의 신뢰도 향상에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3. 하나님 나라 비전의 강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의 정립과 실천

삶과 신앙의 일치, 신앙과 신학의 건설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정치와 그 상징 및 표현들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신학적 용어가 다소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보다 덜 권위적인 은유들(예컨대 친구, 부모, 동료로서의 하나님)이 현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에 더욱 적합한 묘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그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의 방법으로 운행되도록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주관하시는 분과 주관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ongoing) 관계성을 함의하고 있다.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주권적 질서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경제, 정치, 문화적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치·경제·문화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과 기독교적 전통만이 아닌 정치·경제·문화적 기구들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우선되는 자료로는 성경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가운데 하나인 이성, 인간이 발달시켜 놓은 과학들과 경험들도 그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⁸⁾

8) David A. Krueger, *Keeping Faith at Work*(Abingdon Press, 1994), pp.49-50.

한국교회의 신뢰도 추락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 중 하나인 이원론적 사고와 편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강조로써 극복되어야 한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깔뱅의 고백처럼 정치·경제·문화를 망라한 전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질적인 성/속의 이원론을 강화시키는 신앙의 사사회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신앙과 신학의 이원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전통적인 반지성적 경향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의 이성에 대한 재평가로써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⁹⁾

6. 신뢰사회형성을 위한 공유적 가치관의 제시

성서가 증거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신뢰사회 및 사회통합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1.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인간의 가치에 그 초점을 두는 인간의 존엄성은 기독교적 문화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우리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인 존엄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주장하는 신성한 증거가 된다. 인간생명의 신성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말하여 주기도 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존엄성을 고양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나 우리 자신의 그것을 해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의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나 구매력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신뢰사회 형성 및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준을 수립함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6.2 사랑과 정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9) 물론 이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
 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6-40)

만약 신앙인의 소명이 이웃과 공동체(인간과 비인간의 세계를 포괄하는)를 섬기는 것이라
 는 점을 확신한다면, 사랑과 정의는 이러한 섬김이 기독교적 문화가 의미하고 요구하는 규
 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우리의 문화 한 가운데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것의 삶으로의 적용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그 전형이 발견된다. 예수님의 삶은 이기심을 극복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전형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었다. 그 사랑이 품는 영역은 무한정 넓고 또한 무조건적이어서 예수님
 은 죄인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긍휼을 나타내고 또한 선포하였다. 그의 삶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
 랑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라인홀드 니
 버와 같은 이른바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은 매우 왜곡되어진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directly)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은 이웃의 유익을 구
 함이 사랑의 목적이기에 정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indirectly) 그 영향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조건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모색하는
 정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의 세계에서 사랑은 죄와 악, 또한 상호 배타적이
 며 동시에 상호 경쟁적인 주장들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섬
 기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한다.

6.3. 생명중심의 생태학과 공동선

교회의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예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집약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하여,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

나눔께서 피조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하시며, 결국에는 역사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평화, 정의, 자유, 건강 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¹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숙한 변혁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운동의 핵심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삼위일체적 존재하심과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표본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 되신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 안에서 하나이심을 본받아 서로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다양성을 사랑과 교제로 극복하여 하나 되는 삶이 우리 문화 안에서 증거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개념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사회통합의 작업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에게 그 당위성과 참여 범위와 바람직한 참여 태도를 제시하여 준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비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사회통합 작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선(common good)¹¹⁾'의 개념이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인간의 삶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되시는 "하나님께서로 정하여져 있다(ordained to God)"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즉 신적인 초월성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인 공동선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조응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 이룸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good)에는 공동선과 사적인 선이 있다. 공동선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이며,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적인 선들은(private goods) 도구적으로 선하다. 도구적이라 함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어떤 다른 유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은 인간과 세계의 공동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만 선으로 적합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돈, 일용품, 그리고 서비스 등 대부분의 경제적인 물품들은 사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서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10) Paul Hiebert, op. cit., p.18.

11) David A. Krueger, *Keeping Faith at Work: The Christian in the Workplace*(Abingdon Press, Nashville, 1994), p.65, 일반적으로 공동선의 개념은 로마 가톨릭 윤리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며, 그 이후 자연법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계보가 20세기에는 자크 마르탱(Jacques Maritain)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첫째 '사람의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회윤리적 차원에서의 공헌을 논한다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유산으로서의 공동선이라는 이유와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이들의 사상은 로마 가톨릭의 전유물만이 아닌 전체 교회와 신앙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라 이유에서 '공동선'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들의 유익을 지향할 때만 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식은 생명을 지속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음식은 폭식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한다. 돈은 생활에 필요한 다른 것들인 주택, 의복, 교육을 확보하여 인간의 복지를 지속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돈은 탐욕, 사치 생활, 그리고 자아 몰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공동선은 개인의 본질적인 인권을 소중히 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보다도 이웃,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동선은 사람들 개개인이 자아실현과 완성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적 선들을 포함한다. 공동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권리의 우선성을 지지하면서도, 더욱 큰 전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 사회의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여 주며, 우리 자신을 위한 선보다 더 큰 목적들을 추구하여야 할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도록 한다. 사실 사회는 개인적 선들, 이익들, 그리고 인격적인 선택들이 단순히 합쳐진 집합체를 넘어선다. 공동선을 신학적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회와 생태계에서 부분적인 것들은 완전한 - 사회의 공동선, 우주, 그리고 신적인 선 - 하나님의 더욱 큰 선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이다.¹²⁾

공동선의 개념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인간중심주의와 포스트모던적 소비문화의 경향성인 철저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하여 준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동선이란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선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선이란 단지 인간생명만이 아닌 모든 생명의 선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동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공동선’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 다른 종(species) 나아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말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와 ‘욕망중심’의 포스트모던적 소비문화를 극복한다.

맺는 말:

우리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함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요소들과 필요한 노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망하여 보았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결국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증진은 신앙인의 신앙인다음과 교회의 교회다움으로부터 시작되며 마무리되는 과제이다. 물론 더욱 지혜로운 책임의 수행을 위하여 정확한 사회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만인제사장으로서의 사역 활성화와 시민사회 안의

12) Ibid., pp. 66-68.

교회로서의 자각을 필요로 한다. 소수의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지도층인사들의 관점만으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영역과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할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다움은 시민의 기독교인 됨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시민됨도 요구한다. 여기에서의 시민이란 한 사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답지 못함과 시민답지 못함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신앙인 됨의 기초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앙과 삶의 일치의 당위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고백,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통찰에 기초한 지속적인 자기개혁 등은 윤리적 탁월성과 전문성 담보의 전제이며, 곧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적 내용들의 확인과 점검, 즉 신학적 작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개방적 수용성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개혁되어진 교회라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은 오늘의 우리 교회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일관되게 개혁적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들 각자에게도 자신의 삶과 태도만을 절대시하거나 그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삶,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과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을 실천 하도록 하여, 더욱 신뢰를 받고 또 줄 수 있는 기독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할 것이다. 

지정 토론 1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한기양 목사

울산새생명교회, 굿미션네트워크 부회장

연대와 배려와 섬김을 실천해야

1. 부끄러운 현 상황들

불교계의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저항운동이 심상치 않다. 이제는 전국을 돌며 반정부집회를 가질 태세이다. 정국의 흐름이 자못 엄중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실은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한기총 계열의 교회 지도자들의 정파적 편향이 불러온 부메랑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난 오랜 기간(20여 년 이상)동안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랑하며 민심과 담을 쌓아온 결과이다. 목사라고 자기소개하기도 부끄럽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경고하셨거늘 지금 한국교회의 처지가 뼈아프다.

200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가 크게 줄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졌다.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경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개신교 성장이 자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신교 인구 감소를 알리는 이 통계는 같은 기간 중 가톨릭 신도의 증가와 맞물리며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개신교가 민심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심장한 예시적 증표로 읽히기 때문이다.

기억하듯이 한국의 초대교회는 시대적 과제인 개화와 독립의 문제와 씨름하던 민족의 교

회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시대정신과 민족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단별로 '영적 각성'이니 '사회봉사'란 이름으로 지구책을 강구하곤 있으나, 그에 대한 민족적·시민적 신뢰가 크지 않다. 교회가 주는 샘플, 곧 '복음'에 대해 목말라하는 사람이 적다는 반증이다. 교회가 퍼놓은 샘플 역시 맑지 않다는 것이 교회를 향한 민초들의 평가인 것을 힘들지만 인정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좋은 이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교회세습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내의 부정적 행태들이 이 땅에 유배된 기독교인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사적 단체로 민족에게 각인되는 한, 과거 불교, 유교가 그랬듯이 개신교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2. 신뢰회복을 위해서 '신뢰상실의 원인'진단부터

이처럼 오늘의 한국기독교는 정체되고 '위기를 맞아, 이 땅의 민초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좋은 이웃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방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한국기독교의 위기란 말인가?" 양적인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인가? 한국기독교의 위기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데에서 위기의 내용을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본질적 위기의 첫 번째는, 경제우선물질주의(맘몬)의 유혹에 깊이 침윤돼 있는 점이다.

하나님 중심을 입으로 말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도 물질(경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향이다. "잘 살아 보세", "금강산도 식후경", "핑 잡는 게 매"라는 사회적 추세(홍수) 속에 민족 모두가 넘어졌고, 교회 또한 넘어진 것이다.

놀랄 만한 경제성장 속에 교회마저도 '말씀'(바르게 삶, 참을 붙잡는 일, 공의와 진실을 귀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일에 우선하지 못하여 도덕성과 인간성이 무너지는 데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거나, 척추신경이 마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교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적 위기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지금도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추세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했고(극히 소수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하거나 망명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진실한 죄책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07년9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92회 총회에서 공식 결의하여 죄책고백을 선언하

고, 2008년 3.1절기념주일을 ‘신사참배회개주일’로 전국교회가 동시에 지켰다.), 민족분단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친일민족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크게 기여했으며, 군부독재정권에 대해서도 교회의 발전을 위해 조찬 기도회를 통해 축복기도도 해주고 친미반공의 깃발 아래서 권력집단의 입맛에 맞는 일을 양심의 갈등도 없이 서슴없이 앞장섰다. 로마 황제 권력과 야합하여 크게 성장한 중세교회가 결국 황제종교로 전락했던 것과 같다고나 할까.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라지만 “잠깐 고개 숙여주고, 입 다물어 정치적 긴장을 회피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서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니, 권력과 적당한 인간관계(사두개적 야합)를 잘 유지하여 선교목적을 이루자”는 생각이 교회부흥 성장론자들의 처세술이었다면 지나친 비판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남겨 두셨다는 점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세 번째는,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간 교회지도자들의 문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회를 ‘경영’하며 모든 좋은 일은 다하는 ‘슈퍼맨’의 모습을 추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의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목회가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영적 교류와 영적 상담이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신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문제쯤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은 아닌가. 그래서 급기야 이런 추세는 ‘영혼의 내적인 빛’을 밝게 하고 ‘종말론적 공동체’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영성신학에 관심하기보다는 교회경영과 급성장 방법론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성숙시키는 관심보다는, 제도적 교회의 관리와 운영치리에 실질적인 시간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세 번째 유혹(명예, 드러냄, 교만)에 넘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개혁이나 설립을 계획할 때, 선교적 관점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한 ‘낮은 곳’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이른바 ‘목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로 이기적 ‘개교회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교회 하나하나가 건강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지역적·교단적 공교회의 연대활동을 소홀히 하여 ‘뭔가 보여주는’ 식의 자기완결구조(심지어 교회의 이른바 ‘브랜드’화 하는)를 고집하면, 설령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자기자랑이 더 앞서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모두가 개탄하면서도 추세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모두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모두 상품적 가치관으로만 바라보면서 개별화되고 공동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의 홍수’에 교회마저도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우리의 허물을 겸손히 인정하며...

이웃 중에서 평범한 ‘보통 이웃’ ‘나쁜 이웃’ ‘좋은 이웃’으로 나누어볼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이웃이라고, 혹은 적어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좋은 이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빌어 말하자면, 교회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 쓸모없이 되니 버려져 짓밟힘을 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좋은 이웃’은커녕 최소한 ‘보통 이웃’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바르게 이끄는 ‘윗물’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격정하며 “바르게 서라”고 비판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통회하며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한국교회의 근본적 위기인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경제우선물질주의(맘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서야 한다.

부자들의 ‘금과 은’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닢’을 더 무겁게(막12:41~43) 셈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저울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마 6:24)는 주님의 단호하신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신앙을 분명히 행동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하는 방식은 경제적인 상거래에서 하는 상호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회 구성구석 스며들어 사회로 하여금 사회 되게 하는 자율적이며 일방적인 참여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물질적 거래상의 어떠한 분기이나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사회가 타락과 부패와 불의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건강한 실체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효소가 되는 것으로 죽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녹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강고한 고체로 커져만 가며, 액체로 녹아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와 단절되어 권세와 물질의 성을 옹호하는 맘몬(황금만능주의)을 주인으로 섬기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교회에 모이는 수의 힘은 흩어지기 위한 선교의 힘이고, 모아지는 헌금의 힘은 나눔을 위한 봉사의 힘이다. '신뢰회복'의 우선적인 자세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아짐'이 '흩어짐과 나눔'으로 액체화되지 않으면, 사회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부패한다.

교회가 맛을 잃고 부패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덩달아 같은 흐름에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맛을 잃고 부패한 교회를 밖에 버려 밟히게 하실 것이다. 섬김과 나눔으로 '녹아서 스며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요3:16) 그 분의 뜻에 따라 이 사회의 양심이고자 한다. 사회구조의 도덕적 속사람이고자 한다.

사회구성체의 모양이나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나라를 심는다. 기독교 정당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당들 속에 하나님나라의 진실을 근간으로 삼게 헌신한다. 기독교 기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기본 가치를 실천하게 한다. 교회를 하나의 강력한 종교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구석에 그리스도의 뜻을 심는다. '녹아서 스며들'은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요, 고통 받는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첩경인 것이다.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마5:13)이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 소금이 짠맛과 방부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고체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액체로 녹아져서 음식 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을 단순히 소금의 물리적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소금의 존재이유 혹은 소금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단단히 화석화된 체제나 제도, 종교화된 견고한 집단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므로 세속적 사회와 다르다고 자신을 내세울수록 사회를 구원하는 소금이 될 수는 없다. '권력의 맛'을 탐하는 고체로 견고히 남으려 자존과 권위를 고집하며 액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한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

고체가 액체화된다고 소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적 봉사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짠맛을 맛보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

하는데도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성스러움(?)을 내세우며 완고한 고체적 실체, 곧 신앙의 집단이기주의로 고체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소금인 교회와 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의 소통은 먼저 교회가 먼저 자기이익을 포기하고, 소금이 녹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10:38) 헌신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 세 번째는,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간 교회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마5:14)이라 하신 말씀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주님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금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방식이라고 한다면, 빛은 교회가 사회의 현실 안주를 넘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유이다. 소금이 자기희생적 봉사라 한다면, 빛은 사회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등불이다. 소금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적 죽음을 말한다면, 빛은 그 분이 직접 실현하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말한다.

교회는 단순히 죽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회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구원을 위해 헌신한다. 교회에 자긍심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부활 생명에 먼저 동참하는 '구원받은, 구원받을 사회'임을 자임하는 일이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의 경우,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신 택한 민족이었고 축복이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이스라엘은 스스로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민족주의화'했고, 하나님 신앙을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여 '유대주의화'한 것이 치명적인 오류였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이다.

우리도 교회만의 구원공동체로 스스로 철옹성을 쌓으면, 먼저 선택받은 축복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만민의 구원을 위한 선발대로 세웠듯이, 교회를 먼저 구원받은 공동체로 택하심은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한 전위대로 세우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주의화'할 수 없다. 교회는 사회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열린 공동체이다.

촛불이 스스로 타면서 빛을 발한다. 희생적 봉사가 생명의 빛을 발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은 바로 교회가 사회에 향해 '좋은 이웃'이 되어 스스로를 포기하며 희생적인 섬김의 봉사를 행하는 그런 빛이다. 그것은 곧 녹아지고 스며드는 소금 속에 이미

빛이 빛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십자가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활하셨다. 거꾸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다. 십자가의 미래는 부활이고, 부활의 현재는 십자가인 셈이다. 녹아지고 스며드는 소금 속에 빛이 잉태되고 이미 환하게 사회를 비추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한국기독교가 십자가 위에서 발하는 부활의 빛을 비춰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부활 승리의 빛이 여전히 십자가 그늘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마11:28)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를 고대한다.

그런데 교회가 발하는 빛은 반사체로서의 빛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반사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교회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된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교회의 실존 근거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세계 속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데 헌신한다. 교회가 스스로 빛을 지니고 있다는 교회주의적 오만에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오만이 아니라 허위일 뿐이다.

매 삼 년째에 드리는 구제의 십일조(신14:28-29)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구제용 십일조도 부정한 흠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없다(신 26장)는 규정은 구제용 십일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곤란에 처한 이웃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주님을 따를 뿐”이라는 자세로 이웃을 섬길 때, ‘좋은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이기적 ‘개교회주의’를 청산하고 공교회로서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한국기독교 역시 각 교회들이 대 사회적 공공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연대의식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교회의 연합기구의 구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구적 발상은 편견이다.

중요한 것은 연합기구를 만들면 항상 따라오는 자리다툼 내지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흥으로 또 다른 사회적 지탄이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우선 사회적 이슈별로 전문분야별로 다양하면서도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기독교적 정강정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기독교적, 복음적 보편성을 담보하는 기본 가치관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의 사회가 다원화

되고 다양화, 전문화될수록 보편적이며 기본적 가치를 선명하게 깃발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된 구원의 기준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문했으나,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강도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자기들의 중요한(?) 일들을 핑계로 지나쳐 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당시 유대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라 여기며 회피하며 비하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 보수정통을 자랑으로 삼는 보수적 교회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여길까?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 ……)만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돌보고 여관, 곧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 비까지 대납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가 ‘좋은 이웃’이었고,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눅10:37) 하시며, 곤궁한 사람의 삶에 자기 위험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참여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좋은 이웃’의 자세를 수미일관 되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기록이 없어 유추할 뿐이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억울하게 강도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강도를 잡으러 나서거나, 강도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병자와 건강한 자가 더불어 사는 삶의 양식이 제시된다.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마9:2)는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다. 그는 함께 온 친구들과 더불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이웃’의 삶은 동참하고 연대하는 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타자를 위한 삶’에서 나아가 ‘타자와 함께 하는 삶’을 이야기한다. **연대와 배려와 섬김**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고전9:19) 유대인들과도 보조를 맞추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보조를 맞추면서 섬겼다. 이 같은 섬김과 배려의 삶의 자세에서부터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민초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 토론 2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조태환 목사
울산큰빛교회

교회다움의 회복 - 빛과 소금된 삶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 마음이 아프다.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반기독교 정서들을 접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상실했을까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가 원래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셨다. 빛은 비추고 소금은 맛을 낸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빛이 나고 맛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움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1.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이것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대사명'을 주셨다. 이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 대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다. 교회는 상담소도 병원도 아니다. 교회는 사회사업기관도 아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내는 곳이다.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상담하고 구제하고 사회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는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성도들끼리만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지냈기 때문이다. 성도들끼리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려고 더 좋은 예배당을 짓고,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관 세우고, 성도의 사후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하고,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원을 세웠다. 교회의 시각이 교회 안에만 성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서 세상의 필요와 호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더 이상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의 예배와 교제와 교육을 위해서 돈을 쏟아 붓는 교회를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빛과 맛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교회! 아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시각을 교회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한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야 한다. 직장 속으로 가정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오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가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다. 하지만 그 구별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닌, ‘세상 속에서의’ 구별이어야 한다. 예수 믿고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 예수 믿고 더욱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목회적 관점으로 큰빛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다.

1) 평일에 교회에 오는 것 보다 이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주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모이게 하고 있다. 믿는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어울리기만 한다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지 못하는 독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인들끼리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가 있고 몸도 시간도 따라가야 한다.

2) 이웃을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게 한다.

특별히 이웃 중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큰빛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10명 이내의 불신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목장(소그룹)이 함께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3) 직장에서도 사랑과 섬김, 희생을 실천하게 한다.

믿음과 신앙생활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직장 동료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예배나 교회 일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못 할 때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며 함께한다. 그리고 위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동료들 전체를 위해서 굶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을 감동시키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한다.

3. 교회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을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이란 이름 뒤에 전도활동이 담겨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활동이 진정한 사회봉사활동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느새 교회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큰빛교회는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 사랑의 지팡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지팡이 운동은 지역주민과 복지대상자들과의 연계활동이며,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서 철저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교회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세웠지만 사회봉사활동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여 전도의 목적보다는 실제적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운동이다.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맹점, 지역봉사자들을 통한 이·미용, 식당, 세탁, 목욕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무료 및 할인 혜택을 나누고, 지역의 어르신 및 소외된 아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로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우대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현재 사랑의 지팡이의 회원수는 400명이며, 가맹점은 73개 업체이다.

이 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의 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제적인 복지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봉사와 섬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무료 급식 제공

지역의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교회가 식당을 개방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따뜻한 대접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을 몸소 체험토록 하는 일은 보다 효과적이다. 목, 금, 주 일 주중 3일을 제공한다.

4. 교회를 개방하여 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1) 무료탁아방 운영

맞벌이 부부나 급한 불일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에 불신자들도 스스럼없이 찾아와 아이를 맡기고 갈 정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해져 있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전담 간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2) 사회교육원 운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봄·가을에 개강을 한다. 수강생을 모집하여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피아노, 발 마사지, 테이핑 요법, 한글학교, 풍선아트, 구연동화, 페이스페인팅, 쿨트, 플롯, 탁구, 뜨개질, 영어 등이다. 사회교육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큰빛 교회의 이름이 지역에 알려지는 홍보효과가 상당하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큰빛 교회의 사회교육원을 다 알고 호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좋은 소문이 퍼져 있다. 특별히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글가르침이 돋보이기도 하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의 저소득층과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나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의 소외된 아동들이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 동구청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국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두 명의 유급교사가 영어·독서지도·수학·한문·특별활동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4) 청소년공부방 운영

부모의 맞벌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습부진을 해소해 주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5) 우리들 도서관 운영

동구지역 주민들의 독서생활 증대를 위하여 40평의 서고면적에 5000여권의 도서와 비디오 400개, 열람면적 140평, 열람실 7 좌석 400여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생동안 모은 책들의 대부분을 헌납하였고 성도들이 낸 소서를 합친 것입니다. 2008년부터는 도서구입 예산을 확대해서 더욱 실속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나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학에 관심이 없다. 지역사회주민들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어느새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가진 자의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눈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 이 사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더욱 힘 있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목회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사회의 교회를 향한 비난 속에는 그래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여 교회가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실망은 오히려 큰 영향력으로 바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정 토론 3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박 병 종 사무총장
울산YMCA

소통의 근원 - 신뢰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체제의 강화가 이웃과 동료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깨뜨려 사회적 위기를 조장하는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는 충성과 더불어 신앙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체험을 통한 신뢰의 형성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극복하고, “선민과 의인으로서의 자기과시가 아닌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회개는 결코 일회적 사건도 아니며,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아님을 역설하며, 시민사회와의 사회윤리적 합의와 연대를 위해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초월적 가치를 사회적 context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랑, 정의, 인간존엄성 등과 중간공리(middle axiom)를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뢰’를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소통이 단절된 상호불신과 분열의 사회상황 속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chapter 3에서 발제자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은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삶과 교회의 교회다움으로의 회복을 주장 한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확보되었던 윤리적 탁월성은 적은 교인의 숫자를 가진 한국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1919년 3.1운동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

를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사회참여는 때로 갈등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특정한 이들과의 정파적 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교회로서의 거룩성과 초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공동선보다는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취짐이 오늘날 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의 추락으로 직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했는데 토론자는 뉴라이트운동이 한 가지 실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볼 때 신보수운동이 정당성이 있는지 발제자의 입장이 궁금하다.

발제자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정태적이고 단순하던 시대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교회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은사, 즉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위임과 임파워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깊이 고감을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성경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취사선택하고 또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90여년 전에도 春園 이광수는 “교역자가 문명과 현대사조의 본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을 미신으로 이끌고 사회의 추세와 並進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한 충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¹⁾. 그런데 한국교회 대다수 지도자의 상황인식이 지나치게 편향성이 강해 “시민사회의 추세와 병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에게 권한을 위임(empowering)하는데 인색하고 교조적인 시사해석으로 의식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발제자는 4-1-4에서 교회가 위계적 질서에 익숙하면 사회로부터 계도화 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 본래 한국교회의 선교초기에 만인 평등을 강조하는 기독교 사상이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와의 충돌로 인해 봉건군주사회의 몰락을 두려워해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었던 전통을 교훈으로 삼아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하리라 본다.

발제자는 4-2에서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의 하나로 민족주의적 도전을 예시하고 있는데 선교초기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게 표결권 없는 언권회원으로 바꾸고 선교주체인 미국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초교파적 자유독노회를 조직한 일이라든지 長監연합회와 같이 교파를 초월한 연대활동, 심지어 종교를 초월한 민족운동에 기독교가 가장 적극 참여한 전통이 있으나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지나친 친미성향과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1) 이광수, 금일 조선아소교의 결집, 청춘, 1917년 11월호(민경배의 한국기독교회사 p. 229에서 재인용)

적 국제정책의 여파로 친미성향 강한 한국교회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발제자는 또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다원종교 사회속에서 통합을 이워 내는 것을 기독교의 과제로 지적했는데 구약시대의 이방종교에 대한 입장과 현대 종교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입장에 차이는 없을까하는 의문에 답을 구하고 싶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시장시절 “서울 봉헌” 발언이후 종교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상에 話者가 깊은 이해 없이 선부른 발언을 함으로써 ‘불국정토’ 개념에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점은 없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교도라 할지라도 그들도 Imago Dei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理性(一般恩賜)을 통해 善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匿名의 크리스천으로 여겨 여기시지 않을까? 혹은 구약의 전통처럼 상종하지 말고 싸워야할 대상으로 여겨야 할까? 라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종교사회에서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보편적 공동선의 개념이 아닌 Pax Romana 혹은 Pax Americana와 같은 제국주의적 평화로 오해되어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발제자는 5-1에서 성서 어디에도 신앙과 삶의 태도(behavior)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런데 5-2에서는 “행동이 아닌 신앙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원론적 희랍철학의 관념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 없는 신앙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의와 사랑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사랑만 관심함이 보수적인 자본주의의 약점이고, 사회적인 정의만을 위하는 것이 동구공산주의 약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가 입 맞추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도 정의도 결핍된 채 자유만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체제라는 천민자본주의에 현혹되어 평등과 정의를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례 발표 1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김승형 사무국장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울산투명사회협약의 체결과 지역협력 활성화

‘투명사회협약’은 사회 제 세력들 간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기존 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되었던 부패와 관행, 관성을 극복하고, 이념적, 계급적, 의제적 갈등을 넘어 협력에 기초한 협약을 체결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5년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는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주요 대표자 40명이 모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4월 7일 이들 4대 부문의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족하였다.

1. 투명사회협약의 배경과 목적

투명사회협약의 추진배경

불투명성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함수

▶ 선진사회로의 진입은 부패와 투명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소득 1만불을 기점으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좌절한다. 지난 '97년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한지 얼마 되지 않아 IMF 외환위기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절한 한국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CPI)에서 한국은 올 해 146개국 가운데 47위로 이는 경제규모 11위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소득 1만불을 기점으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좌절하였다.

-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 해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 발전의 가장 걸림돌은 정치부패, 정경유착, 경제의 불투명성,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효율성이다. 몇 가지의 수치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손쉽게 증명될 수 있다. 2003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국가경쟁력 102개국 중 18위이지만 정책일관성에서는 42위, 공공기관 36위에 그쳤으며, 2002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은 75개국 중 57위였고 기업이사회의 효율성은 45위, 은행 건전성 55위 등으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추이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순위	27	27	34	43	50	48	42	40	50	47	40
조사대상국수	41	54	52	85	99	90	91	102	133	146	159
%	65.9	50.0	65.4	50.6	50.5	53.3	46.2	39.2	37.6	32.2	25.1
한국 점수 (10점 만점)	4.29	5.02	4.29	4.2	3.8	4	4.2	4.5	4.3	4.5	5.0
OECD 가맹국(30개)중 한국순위(위)					27	27	24	24	24	24	22

- ▶ 정치, 공공부문, 경제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이다. 해외 유력언론과 투자기관들도 한국 정치와 기업의 불투명성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변화 속에 자리 잡은 강고한 성장잠식형 사회구조

- ▶ 한국사회는 사회기초와 구조 전반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소용돌이의 와중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물질적 가치의 사회에서 탈물질적 가치의 사회로, 풀타임 잡에서 파트타임 잡 사회로 등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 ▶ 한국은 저성장 사회의 기점에 진입해가고 있지만 합리적 중간층의 미약, 갈등구조의 온존에 비해 대화와 화해의 잠재력, 장기적 통찰력, 탈산업적 경제기획력이 빈곤하여 안정적 저성장, 깊은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현재는 희박하다.
- ▶ 부패온존, 부패용인, 부패 친화적 사회구조를 유지한 채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우며 따라서 부패를 인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지속가능한 투명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진사회 진입의 최종 과제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극복과 새로운 발전 동력의 획득

- ▶ 소위 ‘산업화, 민주화’ 구도하의 갈등해결 방식으로서의 억압기제와 백화제방형 방식의 유지는 작금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주도하였던 60년대 - 70년대의 하향적 지배력과 80년대 - 90년대의 상향적 압력의 일방적 의사소통방식은 불안정한 침체로부터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과제에 적합하지 못하다. 과거 선진사회의 경험과 현 단계 과제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는 사회 제 주체들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은 기존의 억압과 분출의 기제보다는 대화와 조정의 기제가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 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되었던 부패와 관행, 관성의 극복은 이러한 대화와 조정의 기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패개념의 변화와 확장이라는 한 측면과 공공부문의 축소, 아웃소싱의 증가, 사적부문과 시민사회의 확대라는 또 다른 측면의 결합이 공동의 협력과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 ▶ 또한 한국사회가 현재의 이념적, 계급적, 의제적 갈등을 넘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협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며, 투명사회협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다.
- ▶ 남아프리카, 아일랜드처럼 사회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과 같이 사회경제적 곤란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기존에 반목하였던 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투명사회협약의 특성과 목적

“……우리는 오늘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모든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 협약을 체결……”(투명사회협약 전문 중에서)

- ▶ 투명사회협약전문에 따르면 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부패극복에 이해를 가진 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 노력이 기초하여 성립 됨. 이는 협약의 주체문제, 그리고 이 주체들의 상호소통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은 이러한 주체 간 연대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 ▶ 기존 구조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부패극복의 주체들은 사회협약을 통하여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협약 실행은 법·제도의 개선 외에 기존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 협약은 기존의 상향식 혹은 하향식 의사소통이나 대립과 갈등의 관계와 달리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관계의 특성으로 한다. 선진사회와 같이 사회 각 세력들 간의 살아있는 소통구조와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실천의 약속은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2. 울산투명사회협약 체결과 내용

울산투명사회협약 추진 과정

- ▶ 울산광역시시는 2006년 부패방지대책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투명사회협약체결추진을 포함 시켰다. 울산시, 의회, 교육청,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내 주요부문이 투명사회협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5대 부문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울산투명사회협약이 본격 추진되었다.
- ▶ 2007년 1월 3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투명사회협약의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각 부문별 과제와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2월 27일 울산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 ▶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은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발족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협약기관과 단체 대표 45인, 참관인사, 지역주민 등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협약문과 울산시민현장에 서명하고, 울산투명협 발족문을 낭독한 뒤 약속의 띠잇기 행사로 협약 체결식을 마무리하였다.
- ▶ 울산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한 기관, 단체는 아래와 같다.

- <공공부문(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정치부문(9)> 울산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한나라당 울산시당위원회, 민주당 울산시당위원회,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회
- <교육부문(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 <경제부문(15)>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출장소,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경남은행 울산본부, 부산은행 울산본부, 농협중앙회 울산본부, 현대자동차(주), SK(주), 삼성SDI(주), 한국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 <시민사회부문(9)>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YWCA, 울산YMCA,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홍사단,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

부 문	과 제	
공공 부 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및 반부패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강화 · 공직유관기관의 자체 반부패노력 강화 및 연구활동 적극 참여
	부패방지체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 공공부문 기관별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활성화 ·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 민원처리위원회, 시민감사단 제도 등 도입 ·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적인 공직인사 운영 ·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 납세자 소송 등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공직윤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제한 및 관리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 공직자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 및 지도 점검 강화

정치 부문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 지방의원윤리위원회 설치 · 직권남용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 협약의 입법화 지원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인의 자격준수 · 정당가입 및 탈당 강요 금지 ·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운영
교육 부문	교육행정 투명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부패종합대책 수립 · 감사참관인제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 예산편성, 공사,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건전한 교육 풍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강화 · 학교급식, 앨범구매계약 등 학교회계 투명성 강화 · 춘지, 불법찬조금 등 금품수수 거부 · 엄정한 성적관리, 학부모임원 지위 남용금지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공직윤리 및 투명성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실효성 강화 · 공직자행동강령 엄격한 시행과 관리 · 반부패교육 강화
	교육위원회 자정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위원 윤리강령 이행 · 저비용, 고효율의 투명한 위원회상 구현 · 불법적인 청탁, 로비 금지
경제 부문	윤리경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윤리강령 제정, 접대, 향응, 정치적 기부 금지 · 윤리담당조직 운영 · 투명한 상거래 정착 및 하도급 비리 규제 등 기업내부 부패문제 개선 ·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 기업경영원칙 준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투명성 강화 · 기업 내부 고발자보호제도 도입 · 정보공시 강화 · 부당내부거래 차단 ·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 강화
시민 사회 부문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강령 정착 및 공익성, 투명성 강화 · 투명성 교육 강화
	시민참여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시민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요사업

울산투명사회협의회의 투명세상만들기 어린이 마당극, 워크숍, 강연회 등 교육홍보사업과 울산부패인식도조사 등 연구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 심화워크숍 개최

매년 1회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는 투명사회협약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 부패인식도 조사에 대한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였고 2008년에는 울산투명사회협약에 참가한 각 기관들이 제출한 울산투명사회협약 이행계획을 기초발제하고 토론하였다. 2008년 말에는 울산투명사회협약에 참가한 기관, 단체들이 제출한 협약이행계획을 근거로 평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투명울산만들기 시민강연회

초청강연회는 2007년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도시 울산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청렴위원회 서생현 자문위원, '행정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의 강연회가 있었다.

▶ 신나는 투명세상만들기 어린이마당극

작년과 올해 울산시내 초등학교 20곳에서 신나는 투명세상만들기 어린이마당극이 개최되었다. 38회 공연이 실시되어 4천명의 1,2학년 초등학생이 마당극을 관람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실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그릇된 행동을 근절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 공연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방과 후 교실 청소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의 에피소드 3꼭지와 율동과 노래배우기 등으로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투명울산실현을 위한 울산시민 참여현장 서명운동

2007년 9월부터 매월 1회 삼산동 롯데백화점,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울산대학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주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캠페인에 참가하였는데 시민들에게 리플릿을 전달하고 울산시민현장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울산부패 인식도조사

2007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울산투명사회협약 체결 각 부문의 구성원과 울산시민들의 울산지역 사회의 청렴도 및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협약참가기관 종사원 250명(공공부문 50명, 정치부문 50명, 교육부문 50명, 경제부문 50명, 시민사회부문 50명), 울산시민 500명을 면접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울산시민들과 협약참가기관 종사원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인식도 조사결과 자료 분석, 반부패 대책 수립 및 발전방안 참고 자료로 이후 활용하고 있다. 

사례 발표 2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정연우 사무국장
울산 기독교사회봉사회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사회봉사

사례 발표 3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 울산

백인옥 대리
현대예술관 홍보마케팅팀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의 평생학습

경제적 발달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삶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조차 정신적인 풍요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단체에서는 다양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여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음은 문화지원 기업으로 4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해 문화나눔의 진정한 모범상을 정립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신뢰회복과 함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6개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91개 강좌에 회원 수만 해도 1만 8천 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 평생학습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문화나눔 사업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신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본 사례발표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역사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화나눔과 평생학습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기업 - 현대중공업



창조적 인재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현대중공업은 창사 당시부터 사내외에 학습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오늘날 풍부한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에 평생학습의 개념이 자리잡기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최적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문화를 지역에 확산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문화사업과 메세나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와 동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

- | | | | |
|------|---------------------------------------|------|--|
| 1972 | 현대중공업 창사
직원훈련원(현 기술교육원) 개원 | 1995 | 한마음회관 갤러리 오픈
서부회관 개관 |
| 1974 | 어학실습실 개설 | 1997 | 한마음회관 유아스포츠탄 개설
대승문화교실 개관 |
| 1977 |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준공
연수원(현 인재교육원) 개원 | 1998 | 현대예술관 개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
| 1990 | 현대주부대학 개교 | | 미포회관 고용촉진 양성센터 위촉 |
| 1991 | 한마음회관, 미포회관 개관 | 2007 | 한마음회관 등 전 센터 리모델링
국내기업 최초 평생학습축제 개최 |
| 1992 | 한마음회관 옥외체육시설 개장
한마음노인대학(현 청운대학) 개교 | 2008 |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및
디지털시네마관 개관 |
| 1994 | 동부문화교실, 동부회관 개관 | | |

국내 최초, 최대규모 기업 평생학습 실현



415개의 문화강좌와 192개의 스포츠강좌 등 총 607개 강좌에
수강인원이 1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루 1만 2천여 명이 센터를 다녀가며, 연간 450만명, 지금까지 연인원 6천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용 편의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국 최초, 최고의 평생학습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

다양한 평생학습 기구



인재교육원

- 전사원 기본교육 (신입사원~최고경영자)
- 직무 교육
- 사원가족 교육
- 사이버 교육 (연 4만 6천여명)
- '09년도 신축 인재교육원 개원
- 연교육 인원 1만 7천여명

기술교육원

- 기술연수생 양성교육 (조선, 기계, 전기, 도장, 조선CAD)
- 재직자 기술·직무교육
- 협력사 교육
- 국제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양성
- 연교육 인원 1만여명

현중기술대학

- 1999년 개교
- 조선, 기계전기, 경영학과 운영
- 948명 수료
- 학점인증제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수상

현대주부대학

- 1990년 개교
- 지역주부대상 '행복한 가정설계' 과정
- 체험학습(봉사, 문화, 인터넷 분야) 병행
- 1만여명 수료

▶ 청운대학(노인대학) : 1992년 개교, 1~2년 과정, 졸업생 450명 배출

▶ 한마음유아스포츠탄 : 1997년 창단, 1년 과정, 연간 120명 졸업



현대중공업 전문 평생학습 센터



현대예술관

- 1998년 개관
- 고품격 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디지털 시네마관을 갖춘 복합 문화예술센터
- 체육관, 볼링장, 인공암벽, 라켓볼장 외



한마음회관

- 1991년 개관
- 영유아, 주부, 노인(청운대학) 등 전계층 대상 프로그램



미포회관

- 1991년 개관
- 자격증 취득 등 전문강좌 위주 운영

동부회관 / 동부문화센터

- 1994년 개관
- 수영장과 헬스, 주부와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서부회관

- 1995년 개관
- 수영장, 옥외 농구장, 문화 스포츠 강좌 운영

대송회관

- 1997년 개관
- 체험학습과 실기 위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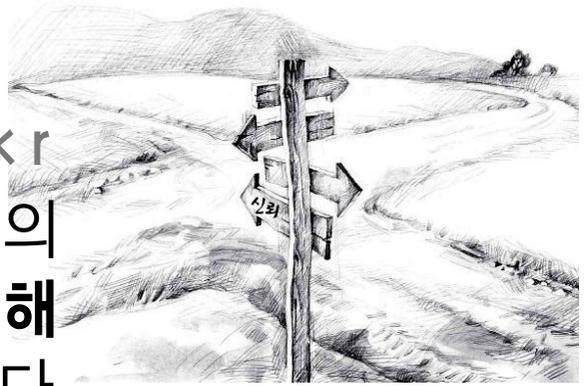
현대중공업 메세나 사업



- USP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지원
- 지역 예술단체 지속 지원 육성
(울산남성합창단, 동구여성합창단, 현대소년소녀합창단, 현대청소년교향악단)
- 예술관련 5개 자문위원회 운영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정보화)
- 현장콘서트
- 찾아가는 음악회
- 행복한 음악회
- 금요 로비음악회
- 토요 퓨전국악마당

www.trust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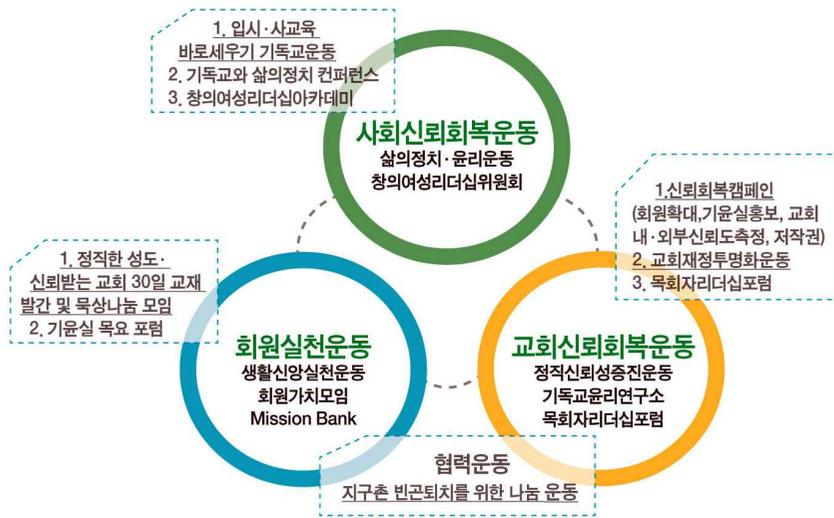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 (TRUST 신뢰가 주도하는 공동사회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2008! 기윤실 9대 핵심사업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욱(송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송실대 교양학부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번지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한국교회의 신뢰성증진을 위한 서포터스가 되겠습니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교회가 윤리성과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성도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고자 기운실이 2007년 조직한 단체입니다. 신뢰성 증진을 돕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컨설팅,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와 성도가 우리사회의 신뢰성 증진을 주도해 나가도록 섬겨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운동 소개

1. 한국교회신뢰지표

신뢰성 제고가 교회의 건전성 확립 및 교회발전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신뢰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그에 의한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 ① 한국교회신뢰지표 보급(설문조사 및 특별강연)
- ②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 보급(비전과리더십, 조직운영, 사회적책임, 성도의삶)
- ③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일반시민대상)_2008년 하반기



2. 교회 저작권 운동

- ① 저작권 인식개선운동(교회저작권 가이드북)_무료 배포중
- ② 저작권 이용편의운동(공개SW활용 매뉴얼, 저렴한 SW가격 정책 유도 등)

3. 재정투명화운동

- ① 교회재정운영 규정 가이드북 발간
- ② 목회자 세금 납부 지원운동
- ③ 교회재정 종합매뉴얼 발간_2008년 하반기

공동대표



왼쪽부터 김동호 목사(높은뜻승의교회)
박은조 목사(분당샘물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울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체명	울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Ulsan Christian Ethics Movement		창립일	1990년 7월 7일
대표	이창희		전화 팩스	(052)285-2072 (052)282-0693
주소	683-5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7번지		이메일	sisimi1@hanmail.net
설립목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구성	“너희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5)		주제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 & 사회
조직	고문	강신원(독서운동가) 김용언(소아과전문의) 성보경(창성약국 대표) 배영일(울산대 교수)		
	실행 위원	곽효근(주님의교회 담임) 김공대(울산대 교수) 김기현(울산남구 국회의원) 김진(울산대 교수) 노도영(서울산교회 담임) 석창진(삼산교회 담임) 양성태(태화교회 담임) 유인만(현대자동차 신우회 회장) 이사무엘(연암중앙교회 담임) 이영춘(한울교회 담임) 이창희(우리들교회 담임) 이충기(삼성석유) 장활욱(동평교회 담임) 정성용(치과전문의) 조영진(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 진영식(소리교회 담임)		
	간사	류형철		

2008년 시행사업

▶ 울산지역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회복 구축

- 1) 성도들의 성경적 윤리회복을 위한 윤리부흥회 개최
- 2) '한국교회신뢰지표 컨설팅' 지역교회에 실시
- 3) 지역 기독교언론들과 지속적인 교회신뢰회복 캠페인 전개
- 4)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여도 증진운동 전개
 - ▷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협력방안 모색

▶ 건강한 울산문화를 위한 지속적 문화운동 전개

- 1) 처용문화제명칭폐지를 위한 문화연대, 처용문화제 명칭폐지 범시민운동본부와의 연대사업 지속적 전개
- 2) 건전광고 문화운동전개
 - ▷ 프레카드, 광고전단, 영상매체 광고 등의 허위, 선정성, 폭력성등 계도
- 3) 우리동네 기도모임 / 대학동네 기도모임 후원 (울산대학교 기독교아리 연합기도회)

▶ 70% 미자립 개척교회와의 동역사업

- 1) 지역 거점교회들의 미자립교회와의 동역
- 2) 성도들의 수평이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 대안마련

▶ 울산기윤실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 1) 기윤실 아카데미 창립 / 울산 기독교윤리연구소 개소
- 2) 기독교윤리실천대상 제정

▶ 개인, 단체 후원및 회원 확충운동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1) 후원교회와 단체 (현 11곳)에서 20곳으로 기윤실 운동 동참및 확대방안마련
- 2) 개인회원활성화 방안
- 3) 후원자관리시스템 마련(울산기윤실 전용 홈페이지 마련과 연계)

▶ 울산기윤실 홈페이지 구축

- 1) 울산기윤실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윤실운동의 극대화 방안마련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울산

울산기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울산시 북구 천곡동 527

전화 | 052-285-2072

팩스 | 052-282-0693

이메일 | sisimi1@hanmail.net